

매일신문

문경,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자 모집...일시지급형 상품 신규 도입

입력 2025.08.18. 오후 7:32

한국농어촌 문경지사.. '고령농업인은 노후 안정,청년농업인은 귀중한 농지 확보기회'

작년,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?
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보세요!

추가로

농업인 요건
 • 약정채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

지급대상농지
 •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

지원내용
 ① 매도(분할지급) 농지매도 대금 +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
 ② 매도(일시지급*) 농지매도 대금 + 1ha당 50만 × 지급기간 × 지급률
 * 경작허용농지 1,000㎡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, 지급 기간별 최대 30% 차감
 ③ [매도 조건부 임대]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+ 농지연금 + 농지임대료
 ※ ①과 ②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,000㎡ 이상 3,000㎡ 이하의 경우 공익작물금 수형액만큼 차감 후 지원

지급상한 연적
 • 최대 4ha(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연적 합산)
 [매도*] 최대 월 200만원(4ha기준)
 • 10년 기준 (분할지급) 240백만원, (일시지급) 168백만원
 [매도 조건부 임대*] 최대 월 160만원(4ha기준)
 • 10년 기준(분할지급) 192백만원 + 농지연금 + 농지임대료

사업신청방법 :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

※ 자세한 가입조건, 지급금액 등은 상담 후 확인하세요.

농림축산식품부 kr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문의 ☎ 1577-7770

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포스터

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(지사장 김종학)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고 청년 신규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.

이 사업은 만 65세부터 84세까지의 고령 농업인이 영농을 중단하고 자신의 농지를 청년농부 등 후계농에게 이양할 경우, 정부가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과 농지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.

신청 자격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 경영을 해온 농업인이며, 신청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, 최대 신청 면적은 4헥타르(ha)다.

직불금 신청 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.

매도 방식의 경우, 농지 매매 대금 외에도 1ha당 월 50만 원(연 600만 원)을 최대 10년간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올해부터는 이 금액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'일시지급형' 방식도 새롭게 도입돼 신청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.

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농지임대료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외에도, 1ha당 월 40만 원(연 480만 원)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도움을 준다.

김종학 문경지사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, 청년 농업인에게는 귀중한 농지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"이라며 "지역 내 세대 간 농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(☎054-550-5313) 또는 농지은행 포털(www.fbo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고도현 기자 dory@imaeil.com

Copyright © 매일신문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88/0000965095>
